

01 자 퇴 와 검 정 고 시

자퇴가 늘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낱말부터	3
03 왜 늘어나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2019~2024학년도 **학업중단자 수와 중단율** — 교육부 원문 표 그대로
- ◆ 「**학업중단**」의 정의 — 자퇴·퇴학·유예·면제·제적을 다 합친 수입니다
- ◆ 공식 통계에 「**전략적 자퇴**」 항목은 **없습니다** — 그런 숫자를 제시하는 곳에 물어보실 것
- ◆ 힘들어서와 계산해서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 먼저 가르는 법

01 · 먼저 사실부터

숫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자퇴가 많다더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사에 도는 숫자가 여럿이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발표한 원문 표에서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1%입니다.

학년도	고교 학생 수	학업중단자	중단율
2019	1,411,027	23,894	1.7%
2020	1,337,312	14,439	1.1%
2021	1,299,965	20,131	1.5%
2022	1,262,348	23,981	1.9%
2023	1,278,269	25,915	2%
2024	1,304,325	27,065	2.1%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중단자 수는 늘고 있다. 2020년 14,439명에서 2024년 27,065명으로 거의 두 배다. 중단율은 1.1%에서 2.1%가 됐다.

2020년이 낮은 것은 코로나로 학교가 제대로 안 돌아간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네 해 내리 올랐습니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붙임 표 13 「초·중·고 학업중단율」(2025년 8월 발표, 2024학년도 기준). 기사에 도는 다른 숫자들은 이 표와 맞지 않아 실지 않았습니다.

02 · 낱말부터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학업중단」은 자퇴만 센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표 아래에 단 주(註)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자퇴(질병·가사·부적응·해외출국·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이다.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유	어떤 경우
자퇴	질병 · 가사 · 부적응 · 해외출국 · 기타
퇴학	품행
유예 · 면제	취학 의무를 미루거나 면제받은 경우
제적	학적에서 지워진 경우

그러니 「고등학생 27,065명이 자퇴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퇴는 그중 일부이고, 얼마인지는 이 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퇴 안에도 결이 다릅니다

사유가 질병 · 가사 · 부적응 · 해외출국 · 기타로 나뉩니다. 해외로 나가는 것과 학교가 힘들어 그만두는 것이 같은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되는 「정시에 걸려고 하는 자퇴」는 이 분류 어디에도 따로 없습니다. 「기타」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유로 적힙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퇴가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식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 숫자를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출처: 위 표의 주(註) 2)~4).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다. 퇴학·유예·면제·제적을 다 합친 수다. 자퇴만 따로 센 수를 이 표에서는 알 수 없다.

03 · 왜 늘어나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까닭을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는 사유를 다섯으로만 나누고, 그 안의 속사정은 안 셉니다.

다만 이야기되는 것은 대체로 넷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정시 비중이 커졌다	수능으로 갈 길이 넓어지면 학교에 남을 이유가 준다는 셈입니다
내신에서 밀렸다	한 번 벌어진 내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힘들다	관계·건강·정서 — 입시와 무관한 자리입니다
다른 길을 찾았다	유학·직업·창작 등

이 넷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통계에서는 한 줄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저희가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경우와 계산해서 그만두려는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섞어서 이야기하면 둘 다 상합니다.

앞의 경우라면 이 자료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 학교 상담과 전문가 상담입니다. 입시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뒤의 경우라면 계산이 맞는지를 보셔야 하고, 그게 이 시리즈가 하는 일입니다.

이 면의 「이야기되는 것」 넷은 저희가 상담에서 듣는 것이며 통계로 확인된 사유 분포가 아닙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먼저 갈라 보십시오

차례	무엇을
1	어느 경우인지 먼저 가릅니다 — 힘든 것인가 계산인가
2	힘든 것이면 상담이 먼저입니다
3	계산이면 무엇이 달히는지 봅니다 (다음 편)
4	되돌아올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N5)

1번이 이 편의 결론입니다. 둘을 가르지 않으면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학업중단」이 자퇴만이 아니라 는 것을 아는가
- ☐ 공식 통계에 「전략적 자퇴」 항목이 없다 는 것을 아는가
- ☐ 우리 아이가 어느 경우 인지 갈랐는가
- ☐ 힘든 것이라면 상담을 받아 보았는가
- ☐ 아이 본인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가
- ☐ 결정을 급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 ☐ 무엇이 달히는지 알아보았는가
- ☐ 되돌아오는 길 을 알아보았는가

여섯째를 특히 부탁드립니다. 학적은 한 번 바꾸면 되돌리는 데 시간과 절차가 듭니다. 한 달을 더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이 시리즈는 자퇴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가정이 정할 일이고, 저희가 아는 것은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뿐입니다. 다만 모르고 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결정에 대해 도는 이야기 가운데 확인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만 다음 편들에 담았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자퇴 이야기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요즘 자퇴가 유행이라던데 정말인가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2020년 1.1%에서 2024년 2.1%가 됐습니다.

다만 「유행」이라는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2.1%는 백 명 중 두 명입니다. 아흔여덟 명은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퇴학·유예·면제·제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계산해서 자퇴한 학생」만 센 숫자는 공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한다」로 읽지는 마십시오. 늘어나는 흐름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드문 선택입니다.

Q. 아이가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까닭을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시리즈 여섯 편보다 먼저입니다.

같은 「자퇴하고 싶다」가 완전히 다른 뜻일 수 있습니다.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일 수도 있고,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일 수도 있습니다.

뒤쪽이라면 학교 상담 선생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기관을 먼저 찾으십시오. 입시 계산으로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앞쪽이라면 다음 편부터 보시면 됩니다 — 수사에서 무엇이 닫히는지, 검정고시로 가면 어떤 구조가 되는지, 되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학기 중에 정할 일이 아니고, 대개는 한 학기를 더 두고 봐도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교 학업중단율은 1.1%에서 2.1%가 됐습니다. 다만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고, 힘들어서와 계산해서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2025년 교육기본통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업중단」은 자퇴만이 아니다. 퇴학·유예·면제·제적을 다 합친 수다. 자퇴만 따로 센 수를 이 표에서는 알 수 없다.